



비하인드 베이스볼 | 김응룡의 '내탓이오'에 담긴 속뜻은?

채찍보다 당근...선수를 기살리기 나선 '호랑이 감독'

나부터 변해야 산다

김응룡 감독의 '내 탓이오'에 숨은 뜻은 뭘까. 김 감독이 시즌 초 성적부진에 이례적으로 자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랑이 리더십에 변화를 주면서 선수들에게 채찍보다 당근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해태 시절부터 카리스마의 대명사
시즌 초반 잦은 역전패에 변화 다짐

"이기려 하는 마음에 내가 경기 망쳐
변칙은 줄이고 순리대로 투수 기용"

"감독 때문에 졌다."
한화 김응룡(73) 감독이 입을 열자 구단 관계자들과 취재진이 모두 깜짝 놀랐다. 진 경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나 한숨으로 일관하기 일쑤였던 노(老) 감독이 이례적으로 짧고 굵게 자책의 한 마디를 내뱉었기 때문이다. 김 감독이 스스로를 책망하게 만든 경기는 11일 대전 넥센전. 한화는 7회까지 6-1로 앞섰지만 8회초와 9회초에 각각 3점을 내줘 6-7로 역전패했다. 불펜 승리조와 마무리투수가 5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했고, 타선은 상대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는 기회에서 연거푸 잔루만 남겼다. 그러나

감독은 경기 후 노발대발하는 대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다음 날 "내가 잘못해서 진 경기"라고 했다.

●김응룡의 '내 탓이오'는 왜 나왔나

짧은 한마디 안에 굵은 변화가 담겼다. 김응룡 감독은 해태와 삼성 감독 시절부터 특유의 카리스마와 통솔력으로 선수단을 휘어잡았다. 경기의 패인을 제공하거나 부진에 빠진 선수에게는 덕아웃에서 거친 독설도 서슴치 않았다. 그런 김 감독이 "내가 투수들을 너무 빨리 바꿨다. 선발 송창현도 좀 더 길게 던지게 해야 했고(5이닝 1실점·투구수 86개) 마무리 김혁민도 너무 일찍 올렸다(8회 1사 1·2루서 투입)"며 "이기고자 하는 마음에 조금해서 경기를 망쳤다"고 공개 반성한 것이다. 한화 관계자는 "구단 입장에서라도 가슴 아픈 패배였지만, 감독님은 특히 더 속이 많이 상하셨던 듯하다"며 "부임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하신

후회에서 많은 감정을 느꼈다"고 했다.

●"순리대로 투수 운용하겠다는 변화의 신호"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임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 시즌 원칙 없는 투수 기용으로 질타를 받았던 한화이기에 더 그렇다. 한화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시범경기 때부터 좋은 성과가 나면서 코칭스태프의 의견을 지난 해보다 훨씬 많이 수용하겠다고 들었다"며 "2013년과 같은 변칙 없이 순리대로 투수 운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화는 이어진 두 경기에서도 내리 졌지만, 김 감독은 침착했다. 12일 선발 이태양이 5회를 못 넘기고 내려온 뒤 "비록 졌지만 이태양의 가능성을 발견한 게 수확"이라며 다독인 게 그 증거. 13일에는 선발 유창식이 6회까지 93구 3실점(1자책)으로 호투하자 7회에도 변함없이 마운드에 올랐다. 올 시즌 한화 선발 투수가 처음으로 7회에도 마운드에 오르는 순

간이었다.

●감독도 변하고 한화도 변한다

한화는 올해 아홉 번 졌다. 승수보다 패수가 5개 더 많다. 그러나 11일 이후의 2패는 경기 내용 자체가 다르다. 마구잡이로 선수가 바뀌고 특정 선수에게 과부하가 걸리면서 온갖 비난과 야유를 받던 지난해 한화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 일단 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세계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요소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다. 김 감독 역시 충분히 느끼고 있을 터다. 그래서 스스로를 타하는 방식으로 선수단에게 '기죽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에 패배도 아쉬운 법. 한화에게는 앞으로 그 기회가 여러 차례 찾아올 것이다. 그때 비로소 김 감독의 변화에 진짜 의미가 생긴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역세계 운 나쁜 3인방...첫 승은 언제쯤?

윤성환 등판엔 삼성불펜 불안집...2패 명예 방어율 2.55 유창식...마무리가 승리 날려 위기관리 빛난 찰리...NC 불펜은 정반대

"1승 챙기기 참 힘든데!"
각 팀 '에이스'의 명암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차곡차곡 승수를 쌓아가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 잘 던지기도 승수를 쌓지 못한 선발 투수들도 잇따르고 있다.

삼성 윤성환(33)은 가장 대표적인 불운의 희생양이다. 3경기 선발 등판해 19.1이닝 동안 8자책점(방어율 3.72)으로 2패를 안고 있다. 나쁘지 않은 수치지만 경기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그렇다.

윤성환은 13일 SK전에서 5회까지 단 1타자도 출루시키지 않고 퍼펙트 피칭을 이어갔다. 6회 1사에서 정상호에게 맞은 1점 홈런이

첫 안타이자 출루였다. 7회 1사 1루에서 이재원과 박정권에게 연속 안타를 맞고 1실점한 뒤, 신현철에게 볼넷을 내주고 만루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하지만 바뀐 투수 차우찬의 폭투로 2실점을 더 내주면서 윤성환의 자책점은 4로 늘어났다. 8회에는 안지만이 최정에서 만루홈런을 얻어맞고 다 잡은 승리를 허무하게 놓쳤다. 3월29일 KIA와 개막전에서도 7이닝 4안타로 틀어막았으나 1회 야수의 실책이 겹치면서 비자책점(2실점)에도 패배의 멍에를 안았다.

한화의 유창식(22)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3경기에서 17.2이닝을 던져 방어율 2.55의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승리 없이 1패. 13일 넥센전에서 한상훈의 실책이 겹치면서도 6이닝을 3실점(1자책점)으로 막아냈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건 패전이었다. 1일 삼성전에서 6.1이닝 동안 2실점 호투했지만 송창식이 9회



위부터 활약에도 불운에 우는 투수들이 늘어나고 있다. 삼성 윤성환(왼쪽), NC 외국인투수 찰리 쉬렉(가운데)과 한화 유창식이 3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호투를 거듭했지만 아직 1승도 얻지 못했다.

연속 홈런을 맞으며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NC의 외국인투수 찰리 쉬렉(29)도 비슷한 처지다. 찰리 쉬렉은 탁월한 위기관리능력을 보이며 19.2이닝을 책임졌지만 1패(방어율 4.58)만 기록했다. 셋 모두 최다이닝 10위 안

에 이름을 올렸지만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첫 승을 얻는데 실패했다. 야구는 홀로 잘한다고 이길 수는 없는 법. 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날은 언제일까.

박성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다. 한현희가 제시한 기준을 오히려 느슨하게 조정해준 것이다. 한현희에게 2점대 방어율은 올해의 목표 가운데 하나다. 데뷔 첫 해인 2012년에는 43경기에서 69.1이닝을 던져 방어율 3.12를 기록했고, 롯데 부문 타이틀(27홀드)을 거머쥔 지난해에는 69경기에서 67.1이닝을 소화해 방어율 3.21로 시즌을 마쳤다. 엄 감독이 하향 조

정한 기준만 통과해도 지난해보다 방어율 0.5 이상을 낮추는 셈이다. 그런데 정작 한현희 스스로는 "나는 2점대 초반을 할 수 있는데 감독님이 올리셨다"며 기분 좋은 투정을 했다는 후문. 그만큼 자신감이 넘친다. 엄 감독이 막내급 투수의 '도발'에도 오히려 기특한 미소를 감추지 못한 이유다.

현재까지는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보인다. 한현희는 개막 후 8경기에서 벌써 6홀드를 올려 이 부문 선두로 치고 나갔다. 가방이 걸려 있는 방어율도 0.96에 불과하다.

넥센 한현희와 엄경엽 감독의 가방 내기

■런다운

이보다 더 당할 수는 없다. 넥센 3년차 셋업맨 한현희(21·사진)는 마운드에서만 배짱이 넘치는 게 아니다. 팀의 사령탑이자 야구계의 까마득한 선배인 엄경엽 감독 앞에서도 주눅 들기는커녕 내기를 제안한다.

엄 감독은 최근 취재진에게 한현희가 제안

한 '가방 내기'의 사연을 귀띔했다. 숙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현희가 대뜸 엄 감독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부탁하더라. "감독님, 올해 저 방어율 2점대 초반 찍으면 가방 하나 사주세요!" 갑작스럽고 뚝박인 제안에 잠시 멈칫했던 엄 감독은 이내 "2점대 초반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대신 2.70 아래만 나오면 내가 좋은 것으로 하나 사주겠다"고 화답했



올 시즌 넥센의 유니폼을 입은 윤성민이 3루와 1루를 맡아 활약하면서 내야진에 숨통이 트였다. 타선은 물론이고 선수들의 체력안배에도 독특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

뉴스스

넥센 체력 재테크 담당 윤석민

멀티수비로 내야 체력안배·만점 타격에 경쟁 효과까지

넥센에 '윤석민 효과'가 시작됐다. 눈에 보이는 성적뿐만 아니라 내야진 전체가 선순환하기 시작했다. 넥센이 지난해 말 트레이드로 두산에서 윤석민을 영입할 때부터 이미 염두에 뒀던 효과다.

넥센 엄경엽 감독은 한화와의 주말 3연전에서 윤석민 카드를 활용해 중심타자 박병호, 강정호, 김민성에게 작은 휴식을 줬다. 11일 첫 경기에서 유격수 강정호가 지명타자로 나서고 3루수 윤석민, 유격수 김민성으로 라인업을 채운 게 그 출발. 12일에는 주전 3루수 김민성을 지명타자로 내보내는 대신 윤석민을 3루수로 기용했다. 또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4번타자 박병호를 지명타자로 돌리고 윤석민에게 1루수 미트를 맡겼다. 지난해까지 대전구장 성적이 유독 좋았던 윤석민을 사할 연속 선발 출장시키면서 중심타선의 체력을 안배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누린 것이다. 엄 감독은 "올해 윤석민과 유한준이 우리 팀 도약의 키를 쥐고 있다고 봤다"며 "윤석민을 영입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흐뭇해했다.

넥센은 지난 시즌 중반 2루수 서건창이 부상을 당하고 백업 내야수들이 이탈하면서 내야수들의 체력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비교적 백업 요원을 찾기가 수월한 1루수 박병호는 뜸나는 대로 지명타자로 출장했지만, 강정호는 126경기에 나서는 동안 중심타자와 유격수의 중책을 계속 수행해야 했다. 그런데 올해는 엄 감독이 늘 '주전 같은 백업'이라고 강조하는 윤석민이 가세하면서 넥센 내야의 유일한 고민이 해결됐고, 그 효과가 시즌 초반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난 후에 다시 채우려 하면 이미 늦다. 아직 돈이 충분히 남아 있을 때 아껴 쓰고 불리는 게 최고다. 체력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민은 넥센 내야의 체력 재테크에 꼭 필요한 중장둔인 셈이다.

배영은 기자



롯데 문규현이 풀타임 유격수로 출전. 완벽한 수비를 통해 롯데의 팀 최소실책(4개) 공동 1위를 이끌고 있다.

뉴스스

롯데 최소 실책 '문규현 효과'

건실한 수비로 탄탄한 내야 구축...팀 컬러 바뀌

일시적 우연일까? 아니면 노력의 결과일까?

롯데가 14일까지 시즌 11경기를 치른 가운데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믿기 힘든(?)'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롯데의 팀 실책수는 단 4개다. 삼성과 더불어 최소실책 공동 1위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실책의 분포인데 4개 중 2개가 투수인 유민과 장원준의 기록이고, 1개는 외야수 전준우의 것이다. 딱 1개만이 내야에서 나왔다. 3월30일 한화와의 사직 개막전에서 1회 나왔던 박종윤의 에러가 그것이다. 다시 말해 가장 많이 타구가 날아가는 3루와 유격수, 2루수 쪽에선 단 1개의 기록된 실책도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롯데는 14일까지 팀 방어율 3.79로 NC에 이어 2위다. 그러나 진정 놀라운 것은 팀 실점과 팀 자책점이 똑같은(43점) 유일한 팀이라는 사실이다. 어슬픈 수비 탓에 발생한 비자책이 없다는 뜻이다.

롯데가 1982년 창단 이래 최소실책 1위를 한 사례는 1982년 1987년 1992년 1995~1996년이었다.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17시즌 동안 수비 잘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는데 올 시즌 이 팀에 '디테일'이 입혀지고 있는 셈이다.

그 중심에 유격수 문규현(31)이 있다. 박기혁이 부상당했고, 신본기가 부진에 빠진 상황에서 문규현이 풀타임 주전 유격수로서 내야진의 중심을 받쳐주고 있다. 문규현을 중심으로 3루의 황재균, 2루의 정훈, 1루의 히메네스까지 건실한 내야진이 구축됐다.

2002년 데뷔한 문규현은 2011년부터 2년 연속 100경기 이상 출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박기혁과 신본기에게 밀렸다. 그렇기에 "올해 야구를 대하는 태도가 진지해졌다"는 얘기를 듣는다. NC 김경문 감독은 "건실한 유격수는 15승 투수의 가치"라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 문규현에게 어울리는 평가라 할만하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rs121